

[오피니언]

테마칼럼

문화와 사회

ECONOMY

디자인 세상

교육과 미래



이 난경

“

최근 들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보다는 앙드레 김이라는 알려진 브랜드를 활용한 라이센싱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오늘에 전에 발급받은 월지카드를 들고 외출 하여 펜션, 헬스, 쇼핑, 나이트까지 정신없이 보내다 돌아왔더니 이어지는 남편의 화려한 이벤트, 냉장고를 둘러싼 수백 개의 초와 함께 무거운 꽃다발에 파묻힌다. ‘어머! 파티 가야하는데’ 하며 드라마 휴대폰을 들고 드레스를 챙겨 입는다. 벨소리가 나자 구두를 들고 살금살금 나가는데… 광고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한마디. ‘저녁 저녁! 또 카드 깊으려 나간다!’

한 때 광고시장을 평정했던 ‘이영애의 하루’라는 유머다. 에어컨, 냉장고, 화장품, 아파트, 삼푸, 신용카드, 정수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출연한 광고를 하루 일과처럼 엮어 끌어다닌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광고계는 출연한 스타는 기억하지만 제품을 기억하지 못하는 ‘스타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는다.

광고는 제품을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스타마케팅은 제품의 정체성을 없고 스

타에 제품이 가려진 경우가 태반이어서 오히려 스타의 스캔들로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앙드레 김 ‘공화국’

아침에 일어나 세이비누로 세수하고 엘라스틴으로 머리를 감고 운전코웨이 아줌마를 기다려 정수기 필터교환을 한 다음 정수한 물을 마시고 빨래를 걷어 다리미로 다리고 유리창 좀 닦다가, ‘참! 나의 꿈도 소중해’하면서 영어공부를 한다.

오후에 전에 발급받은 월지카드를 들고 외출 하여 펜션, 헬스, 쇼핑, 나이트까지 정신없이 보내다 돌아왔더니 이어지는 남편의 화려한 이벤트, 냉장고를 둘러싼 수백 개의 초와 함께 무거운 꽃다발에 파묻힌다. ‘어머! 파티 가야하는데’ 하며 드라마 휴대폰을 들고 드레스를 챙겨 입는다. 벨소리가 나자 구두를 들고 살금살금 나가는데… 광고를 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한마디. ‘저녁 저녁! 또 카드 깊으려 나간다!’

한 때 광고시장을 평정했던 ‘이영애의 하루’라는 유머다. 에어컨, 냉장고, 화장품, 아파트, 삼푸, 신용카드, 정수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출연한 광고를 하루 일과처럼 엮어 끌어다닌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광고계는 출연한 스타는 기억하지만 제품을 기억하지 못하는 ‘스타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는다.

광고는 제품을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스타마케팅은 제품의 정체성을 없고 스

타에 제품이 가려진 경우가 태반이어서 오히려 스타의 스캔들로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등 위험요소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이영애’는 지금도 계속된다.

비단 이런 일은 광고 뿐만이 아니다. 무한도 전이라는 오락프로그램 하나가 성공하니 걸치기 출연에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수도 없이 생겨난다. 옥수수 수업차가 성공하니 너도나도 만들 어 2년 만에 10개의 제품이 생겼다. 이런 제품은 결국 몇 년 뒤가 상품군 전체가 외연화하고 만다. 전형적인 ‘미투전략(M Too 따라하기)’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좀 뜯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따라하는 미투전략이 판쳐 업계가 공멸하는 경우도 많다.

여행을 다녀보면 지역마다 유명한 식당이 있는 곳엔 너도나도 원조라고 우기는 짹통 식당들이 둘러 있기 마련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는 짹통의 왕국이 아니었던가. 지금은 중국에 자리を取り주었지만 한국인의 따라하기 습성이 부동산 투기, 물가마 투자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월드컵 붉은 애마도 전형적인 따라하기의 열기가 만들어낸 의외의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또 하나의 사례가 앙드레 김이다. ‘한국 패션의 선구적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앙드레 김은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를 이용한 이벤트 마케팅과 홍보로 자신의 브랜드가

치를 유지하는데 현재적인 감각을 보여주었다. 비록 그가 만드는 옷이 쇼를 위한 무대 의상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최근 들어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보다는 앙드레 김이라는 알리진 브랜드를 활용한 라이센싱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의 모 조명업체가 시작한 뒤 안경테, 속옷, 도자기, 냉장고, 에어컨, 신용카드 등 앙드레 김의 라이센싱 영역이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앙드레 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에게 있다. 상품의 이미지는 곧 브랜드 이미지이다. 기업의 이미지다.

앙드레 김의 유럽 바로크풍 장식디자이너 그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에 맞지지 않은 고려 없이 유행처럼 너도나도 라이센싱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키울 기회를 놓아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만의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의 구축이며 그 길만이 오래도록 사랑받고 생존하는 길임을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국가균형발전위 폐지 ‘지방’ 포기한 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사실상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철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균발위 폐지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지방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높은 광주·전남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나온 국가정책이다. 수십년간 심화되어 온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구체적 대안이 무산되면 지방의 죽은 무너진다. 지방 죽이기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성이 묻고 싶다.

정부는 아무리 성장과 실용이 중요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지방이 붕괴하면 수도권도 살아남기 어렵다.

태국·인도에도 밀린 우리의 국가경쟁력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어 큰 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쟁개발연구원(IMD)이 15일 공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08’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조사 대상 세계 55개국 가운데 31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29위에서 2계단 하락한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도 하위권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고 대만(13위), 중국(17위), 말레이시아(19위), 일본(22위), 태국(27위), 인도(29위) 등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우리보다 뛰어난 국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 뿐이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원인은 4개 부문별 평가 중 ‘정부의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1위에서 37위로, ‘인프라 구축’은 19위에서 21위로 밀려났다. 다행히 ‘경제 성과’(49위→47위)와 ‘기업 효율성’(38위→36위)이 올라 하락폭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IMD의 지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경쟁력 지표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지 않다. 특히 각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IMD는 1989년부터 20년째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하고 있다. 스위스의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와 함께 각국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추락은 그 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 하락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관료조직 개편과 각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無等鼓

‘벼슬을 시키는 것이 단지 은택으로 써 우대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 재목을 쓰고자 할이라면, 그 능력을 해야려 직책을 제수해야 합니다.’(중략) 지금의 국사는 마치 큰 별을 차른 뒤 일기와 아직 회복되지 못해 미다마다 아프고 저린 것 같아 한 번 조섭을 잘 못하면 곧바로 위급한 상태로까지 될지경에 있습니다. 마땅히 충직한 선비를 뽑아서 그 직책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략)’

조선왕조실록 명종 31권 20년(1565년) 12월 7일 첫 번째 기사는 정언(正言): 왕에게 잘못을 간하는 언관(언관)을 제수받은 이(李珥)의 사직상소(辭職上疏)로 제워져

국회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담당증을 풀어줄 시원한 답변은 듣기 어려웠다.

이야기 사직상소에 서 강조했듯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뒤집어 켜졌다. 당시 이이는 불교 종흥을 내세워 유생들과의 갈등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요승 보우와 와적 윤형원의 잘못을 상소해 논박한 뒤 왕으로부터 정언을 제수받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중책을 사양했다.

그러나 명종은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장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총직한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정재훈

어느 날 무릎이 아프다는 20대 남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자기공명영상법) 사진을 들고 찾아왔다. 그에게 언제부터 아팠느냐고 물었더니 1년 전에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지금까지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지만 어쩐지 불안정하고 아파서 그 후로는 운동도 못하고 가끔 무릎이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처음 입 근처 병원을 찾아 X-Ray를 찍었을 땐 뻗어어서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두 달쯤 지나서 무

적이 있는 사람이 선 채로 회전하려면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쓰러지는 일이 가끔 있다는 병력만 들어도 전심 자인대 파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병원에서 무릎 안정성 검사를 해 보면 진단이 가능하고, 더 확실히 손상 유무를 알기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것은 필수이다.

전심자인대 파열은 그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가 달라지지만 무릎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한다. 이 환자는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돼 있었다.

MRI를 살펴보니 관절 연골도 손상이

잘 만난 의사, 잘못 만난 의사

들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쓰러져 무릎이 부은 상태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역시 같은 진단을 내려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런 현상이 생기자 또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그 사진을 들고 온 것이다. MRI 촬영 후에 심사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을 정밀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전문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에게는 필자가 네 번째 의사가 됐다. 이 환자는 그동안 의사의 진단을 잘 믿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다쳐서 쳐는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전심자인대 파열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고, 수술도 시행됐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늦었더라도 두 번째 무릎이 빠지는 현상으로 병원에 갔을 때는 전심자인대 파열로 확진되는 만큼 수술이 꼭 필요했다. 무릎 전문 의사라면 과거에 모

됐다. 전심자인대가 파열돼 불안정한 상태로 살면서 몇 번씩 관절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쓰러지는 일이 가끔 있다는 병력만 들어도 전심자인대 파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의사가 잘못 만나 환자가 몸을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래서 의사의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된다.

환자의 질병을 잘 치료해주는 것이 의사의 책무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잘 만난 의사가 되지 않는 길은 평균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의사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자기보다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해 주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수십 년의 경험 통해 알게 됐다.

의사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 하지만, 잘 만난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방법을 알려주는 의사가 되는 것에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광주 동아병원 원장〉

임신 여성 당뇨 급증…복부비만 예방 등 관리해야

임신 7개월째인데 몸이 나른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임신증후군인가 싶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놀랍게도 임신성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뇨는 암 종류는 가족 병력(病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필자는 최근 체중이 감자기 불어난 것 이외에는 천정 쪽에 가족력도 특별히 없어 너무 의외였다. 다만 임신 중이고 아이가 커서 무겁기도 해서 움직이는 운동량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뇨가 올줄은 꿈에도 몰라서 충격을 받았다.

의사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은 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 산모가 늘

면서 당뇨에 취약한 여성도 많아진다고 알려졌다. 임신을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려 당뇨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임신과 상관없더라도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갑자기 감소되고 이에 따라 복부비만이 늘어나 당뇨병이 늘어나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한다.

당뇨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라는 말처럼 본인과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주므로 모든 여성들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수영·광주시 복구 운암동

임양 어린이 인권 위해 파양도 법원서 판결했으면

최근 지인으로부터 파양 당뇨 아동이 보육원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7살짜리 아이가 임양간 지 1년 반만에 돌아왔다

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서라고 한다. 어린 마음에 정신적 충격과 생생기가 얼마나를 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데리려고 올 것이다. 어린 마음에 정신적 충격과 생생기가 얼마나를 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다시 데리려고 올 것이다. 어린 마음에 정신적 충격과 생생기가 얼마나를 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들판이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光州日報